

---

##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의 질

---

- ◆ 일시 : 2020년 7월 3일 (금), 14:00~18:30
-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702호
-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20년 7월 3일 (금), 14:00~18:3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702호

## 제1부 학술대회 |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14:00-16:5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b>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b> •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평생교육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 • 사회 : 이소영 (서울디지털대)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b>코로나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변화 인식</b> • 발표 : 이하원 (충신대) • 토론 : 순덕기 (열린사이버대) • 사회 : 이소영 (서울디지털대)
15:30~15:40		휴 식
15:40~16:10	주제발표 3	<b>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 : 복지정치로 본 전략과 과제</b> • 발표 : 박보영 (극동대) • 토론 :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 : 이소영 (서울디지털대)
16:10~16:20		휴 식
16:20~16:5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50-17:40]

• 진행 :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제3부 총회 [17:40-18:30]

• 의장 : 이소영(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보영(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4차 총회 개회선언\_ 의장 이소영
3. 의장 인사말\_ 의장 이소영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범기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의장 이소영 / 이사 박범기
  - 제1호 안건 : 회칙 개정
  - 제2호 안건 : 임원 제청 및 승인
  - 제3호 안건 : 2020년 상반기 사업 및 현안 보고
  - 제4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의장 이소영
7. 폐회선언\_ 의장 이소영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Webinar를 병행.

## [ 목 차 ]

###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 제1부 학술대회 |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 □ 주제발표 1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 ..... 7

▶ 발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 □ 주제발표 2

코로나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변화 인식 ..... 21

▶ 발표 : 이하원 (충신대학교)

▶ 토론 : 순덕기 (열린사이버대학교)

##### □ 주제발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 : 복지정치로 본 전략과 과제 ..... 35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 49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53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55



제1부 학술대회

---

논문발표

##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주제발표 1]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제발표 2]

코로나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변화 인식

- 이하원 (총신대학교)

[주제발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 : 복지정치로 본 전략과 과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 상반기 학술대회 발제)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청소년상담복지사과정 주임교수)

1

#### I. 들어가며

##### 1. 사회·위험의 등장과 '위험사회'로의 진화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현상

- 전통적 위험은 산업화, 도시화로 생김, 이런 배경하에 실업, 산업 재해등 위험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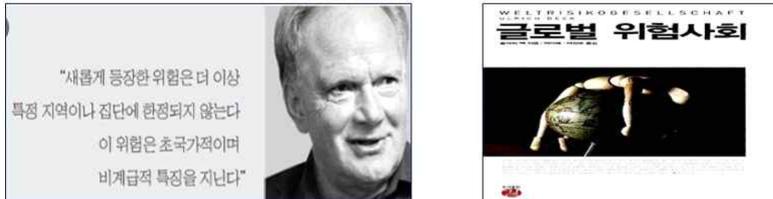
무로 급직소에 줄을 선 시카고의 남성 실업자들 (1931년)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젠더관계변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발생-> 일,가정양립어려움, 한부모가족 증가, 사회보장적용의 불안정성



2

-전통적 위험과 신사회위험은 개인적 위험에 가까움, 올리히벡(1999)은 집단적 위험에 맞닥뜨린 사회인 위험사회논의를 펼침, 위험사회논의는 전통적 위험과 신사회 위험과 차원이 다름, 일단 일국의 위험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이고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 불 분명하고 다양한 원인, 경로로 예측도 불가능한 수준임.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대해 노진철(2004) 등은 산업사회와 위험사회의 구분지점 등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나 지구화 시대의 복지국가에 유용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지구적인 기후변화, 전염병창궐, 세계적인 노동력 이동 및 이주민의 발생과 불확실성의 일상화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2008년 미국 리만브라더스로부터 발생한 전세계적 경제위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이 전세계의 해수 및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다.



3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 퍼져 '팬데믹'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백신 등은 개발이 요원한 상태이다. 올리히 벡이 논한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속성을 그대로 보여줌. 즉 전지구적 차원의 위험,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 코로나 전파의 경로 예측 불가능한 것 등이다. 그 외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가 간의 교류를 막는 역할을 함.



신문고]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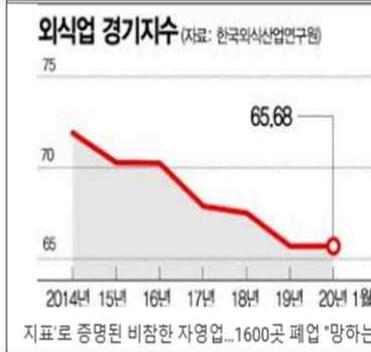
4

2. 코로나 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에 대한 복지의 대응 필요

.코로나 19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움 임금노동자의 해고 등이 발생 → 전형적인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겪는 위험인 실업을 겪음, 그리고 이런 위험은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전통적 복지차원에서 대응의 필요성이 있음.



코로나 장기화, 줄줄이 '폐업'...가계경제 '빨간불'



지표로 증명된 비참한 자영업...1600곳 폐업 '망하는'

5

.특히 코로나 19의 감염자들은 노약자,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음,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위험인 실업과 더불어 위험사회에서의 위험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울리히 벡이 진단했듯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집단이고 사회적 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회전체 및 지구적 차원에서 타격이 가해지는 성격이 공존함.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지만 그 위험을 전통적인 취약계층에서 더 받는 상황이 있기에 '중첩적'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복지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임. 이런 점에서 이 발제문에서는 코로나 19의 파장을 훑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복지적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기로 함.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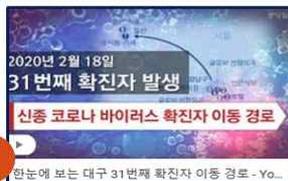
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코로나 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2020.3.10

6

## II. 코로나19의 현황과 문제점

### 1. 코로나19의 현황

- 중국 우한에서 발생, 한국은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한국은 초반에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심각성 인지, 그때부터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대구전역에 확진자 발생했음.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확산되는 경향이 발생하며 2020년 2월 말부터 이탈리아, 중동, 미국에서 발병 및 사망자 수 증가
- 한국은 코로나 19에 적극적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질병관리본부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 감염클러스터, 이태원 감염클러스터 발생하면서 장기화되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 2.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점

- 기존 유명 전염병인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함. WHO는 사스 총 확진자 수가 8096명이고 치명률은 9.6%, 메르스는 총 2494건이 발생하였고 치명률은 34.4%로 보고하였음. 2) 반면에 코로나19는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치명률은 3.4%로 보고되었는데 향후 유행이 확산되면서 치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2020년 3월 4일 기준)
- 코로나 19를 감당할 인력의 부족 및 확진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코로나 19는 예상외로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전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진화되어 경제 외교 교육 환경등에 불확실한 상황을 만듦.
- 특히 BCAC라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임.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도래를 감내해야 함.



### Ⅲ.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 및 과제

#### 1. 코로나19 이후 복지동향 탐색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경제,사회,건강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지 중 하나로 작용함, 이 생활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방향의 필요성이 탐색됨,

#### 새로운소식

홈 > 특집판 > 새로운소식

### “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특단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감염병 취약한 노인·장애인 시설 86.2% 달해  
 안수란 부연구위원 “거리두기 현실적 불가능...재정·인력 지원 및 매뉴얼 구체화” 필요  
 보사연, ‘코로나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9편 발간

강환웅 기자 | 등록 2020.04.09 10:25



9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기존 시설에서의 돌봄보다 집에서의 돌봄의 중요성이 커졌음, 즉 방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응해 방문돌봄 서비스의 자원 배분 및 기능, 관련 인력확충 및 보건관련기준의 확충 등이 논의될 필요가 탐색됨.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지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한 돌봄공백을 채우기 위해 방과 후 돌봄을 긴급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립 성북청소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의 에로사항을 귀담아 들어 위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돌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10





### 2. 코로나19 이후 복지적 과제

생태복지의 중요성(Gogh et al, 2008) → 공생지향정책



13

### 돌봄의 사회화의 실제적 실현



14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 방향 확립

 <b>보건복지부</b> 질병관리본부		<b>보도자료</b> 11월 8일(수) 석간(11.8.06시 이후 보도)	
배포일 2017. 11. 7. / (총 9매)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과장 성재경	전화 043-719-8010		
담당자 이지훈	전화 043-719-8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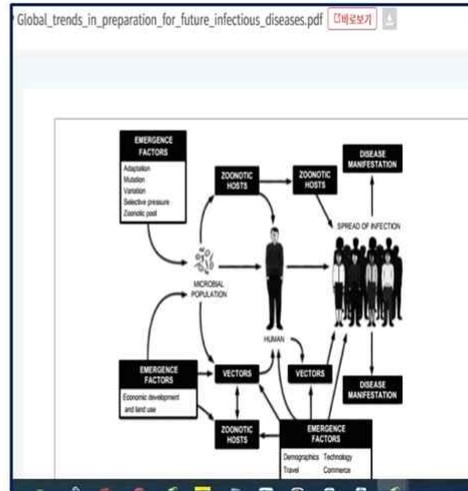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 제5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의 미래 대응 전략 등 논의  
◇ 국가방역체제와 연계된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소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병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균)은 **11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연정기념관에서,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5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5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 오세재,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가 공동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한다.

→ 신종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10년 12월)



IV. 나가며: 위험사회에 대한 보루로써의 복지역할을 바라며

- 코로나 이전시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에 '불확실성의 일상화'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관점에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논의는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사료됨. 그의 통찰을 근간으로 위험사회에 대응할 복지적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봄.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볼 때, 그 위험은 전지구적 차원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그 위험은 기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복지정책의 방향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강화 및 사회복지의 공공성 증대에 두어야 함.
-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분배되었고 꽤 효과적이었음,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적 대응으로 기존엔 현물급여가 우선시 되었다면, 현금급여(소득보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 부분은 향후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대량실업이라는 위험에 대한 대응과도 맞물린다고 봄.
- 사회복지의 기원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로서 출발했고 그 덕분에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새로운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복지적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고 같이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봄. 그런 점에서 이번 발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토론문]

## 「위험사회와 사회복지 :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올 초 기습적으로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이러한 충격에 더해 더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은 발표문에서도 나왔듯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는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 내지 위험사회의 문제 해소와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 이후 우리는 사회경제적 변화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왔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요소와 신사회적 위험요소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실업, 빈곤, 불평등, 불안이라는 요소가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제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져 가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안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사회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영역에서의 과제를 던져주신 발표자분의 발표문은 현 상황에서 우리의 복지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특히 발표자께서 코로나19 이후의 복지과제로 말씀해주신 취약계층과 관련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강화, 사회복지의 공공성 증대,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제도 마련 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언제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 대응 차원에서 적극 공감되는 과제이다. 위의 복지과제들은 그간 우리 사회가 후순위로 미뤄왔던 다양한 논의거리라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등

장한 것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에게 감히 제안을 드리면, 코로나19 이후의 복지과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자료를 좀 더 다듬어서 논문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더불어 본 토론지는 발표문에서 정리하신 내용에 더해 짧은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한다. 복지관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토론지는 지난 3월 말까지 2년이 조금 넘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일해왔다. 퇴사 막판에 경험한 코로나19에 대한 현장의 대처에 있어 몇 가지 과제들이 발견되었다.

## 1. 복지관에 나와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한계

재가복지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도 했지만 기관의 문을 닫게 되니 복지관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위기상황 시 관련 당국을 중심으로 한 복지기관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침 필요

설이 지난 무렵이었던 1월 말에는 코로나19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시기였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복지관 정문에서 이용자를 포함한 방문자 열 체크와 마스크 배포를 실시했다. 그러나 2월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고, 휴관 여부를 두고 기관 내에서 수차례의 논의 끝에 처음 2주간의 휴관 결정을 시작으로 이후 휴관기간 연장이 몇 차례 더 이뤄졌다.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시설장님의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과 휴관여부와 기간, 휴관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매우 난감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복지기관의 대처방법이나 공통지침이 마련된다면 우왕좌왕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 3. 휴관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

복지관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급식 제공 대신 주2회 대체식을 드리는 활동들로 계속되었고, 무엇보다 복지관 종사자들은 다른 때와 변함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인이 속해있었던 상담센터에서는 대면상담이 중단된 대신 전화상담을 통해 안부확인을 매일같이 수행했고, 특히 우울, 애도, 불안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회성 전화상담이 아닌 지속상담을 통해 마음돌봄 상담활동이 이뤄졌다. 교육이나 취미여가프로그램은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업무를 수행했다. 즉 완전한 <휴관>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복지관이 완전히 문을 닫고 이용자나 지역주민 인식 속에는 종사자들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안타까움이다.

### 4. 실적의 높, 유연함을 발휘하기 어려운 복지관 사업구조

복지관에서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런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적에 대한 조급함을 갖게 된다. 물론 2분기가 끝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사업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본인이 근무했던 복지관은 내년과 내후년 재수탁과 복지관 평가를 앞두고 있는지라 그에 직결되는 올해의 사업운영실적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평가방식이 변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 5. 종사자의 안전

본인이 일했던 복지관의 시설관리팀에서는 하루에 두 차례 전관 소독이라는 직접 방역 활동을 실시해야 했고, 여건 상 기관에서의 마스크 지원도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종사자의 안전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이용자로부터의 폭력, 폭언 등으로부터의 안전이 얘기되어왔을 뿐, 감염병 예방차원에서의 종사자 안전문제는 이번 코로나19를 겪고 보니 누락되었던 것이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감염병 예방문제는 종사자들의 안전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6.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적 노력을 수행하는 복지현장 종사자

본인이 근무했던 노인복지관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재가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기관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직접 안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약간의 아쉬움을 더 표현하자면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있어 의료계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 내 취약계층들에게 있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격려도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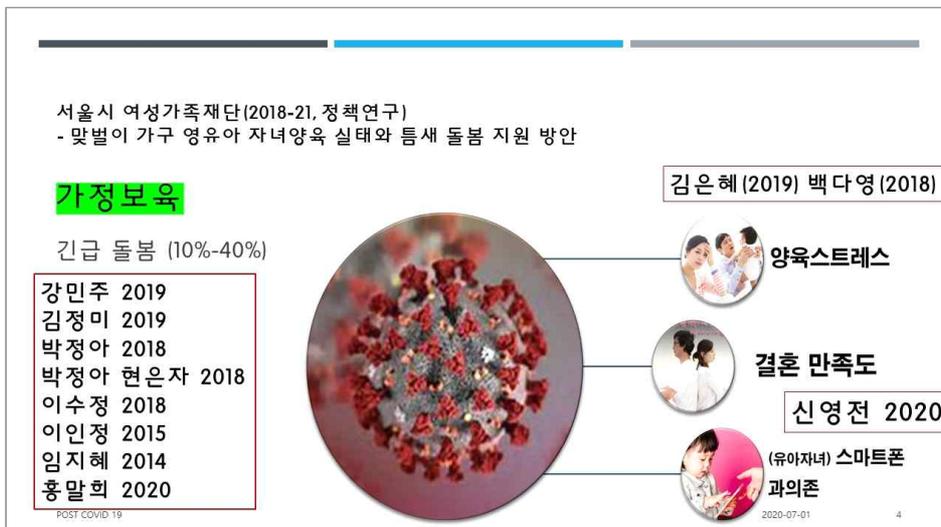
이하원

(충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교수)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등 삶의 변화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수도권지역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총 186명이다. 무작위 확률표집으로 표본을 취합하고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취합된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e 검증 및 Cronbach's  $\alpha$  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 19는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에 mild moderate to moderate 인식변화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 적 거리 두기로 가정에서 자녀 및 배우자와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된 상황이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유아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모두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심리적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인식변화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인식변화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3.**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인식변화는 어떠 한가?

POST COVID 19 5

## 코로나 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

Haleem, Javaid, & Vaishya (2020) Arumita (2020)

### ① 양육스트레스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Abidin, 1990)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느끼며(Worthington 와 Buston, 1986) 현대사회의 복잡성, 경쟁성,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Stefanov, Terziev, & Banabakova, 2018) 보다 가중되었다.

POST COVID 19

2020-07-01

6

### \* 집콕 육아

한국심리학회 질병관리 중앙방역대책 본부 코로나 19 특별대책위원회

2020년 2월-4월(대구경찰서) : 유아학대 신고 접수 53.1% 증가

Secure attachment ?(임지혜, 2014)

### 긍정적 기회

POST COVID 19

2020-07-01

7

### ② 결혼만족도

### Covidivorce (@NEWYORK TIMES)

전반적인 결혼생활 + 자녀양육 + 의사소통(강선훈, 2018)

낮은 가사부담, 공동육아,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이여봉, 2010) 유연한 부부역할 (박천기, 2008)

아버지 역할 부재(Zahra, Sadatmahalleh, Samaneh, Mahnaz, & Anoshiravan, 2020)

전통적 부부역할(이인정, 2015)

POST COVID 19

2020-07-01

8

위기상황에서 결혼생활만족도는 높아짐(Fitzpatrick & Vacha-Haase, 2010)

**'만족'??**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표로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가치(Stephenson, Watson, Chen & Morris, 2018), 진료, 검사, 방역체계 등 국민보건의 긍정적 평가

③ 유아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김정미, 2019; 류미향, 2014; 박정아, 현은자 2018; 백다현, 2018; 이수정, 2020; 최현규, 2020; 홍말희, 2020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또래관계 및 일상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상태(김수정, 2018; 김은혜, 2019; 이수정, 2020)

현저성	유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고, 정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
충동-강박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고 소리가 나면 즉시 반응하고 싶어 하는 것
금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여 짜증이 늘어나는 것
내성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
문제행동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틱과 같은 외현문제가 발생하는 것
대인간 갈등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가족, 또래친구와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는 것 (박정아, 2019)

코로나 19 : '집콕육아' -> 양육스트레스 증가 -> 자기 조절력(임지혜, 2014)

-> 스마트 폰 과의존(박정아, 2018; 홍말희, 2019)

@재택근무

**방임/통제** -> 유아 스마트폰 과 의존 (홍말희, 2019)

\*\*\* 심리적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홍남희, 2012)

### 연구대상

총 인원수	186명
어머니 연령	37.28(SD=5.24)
자녀 연령	6.04(SD=3.56)
자녀/배우자시간변화 (After covid 19)	자녀: 151명 (82%) 배우자: 85명 (46%)
	<b>* 시간 증가(사회적 거리)</b> 자녀: 149명 (97.56%) 배우자: 79명 (92.94%)
기타 일반적 배경	대졸 92명 (49.46%), 직장맘 118명 (63.44%), 400만원 이상의 월소득 136명 (73.12%), 자녀수 2명 88명 (47.31%)

POST COVID 19 2020-07-01 12

측정변인	출처	하위요소	척도	문항수	내적합치도
양육스트레스	강민주 (2019)	고통 (9문항) 역기능 상호작용 (11문항) 까다로운 특성 (9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29	.95
스마트폰 과의존	박정아 (2018)	현저성 (5문항)충동·강박(4문항), 금단(5문항), 내성(5문항), 문제(6문항), 대인간 갈등(5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30	.95
결혼만족도	강민주 (2019)	전반적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22	.97
<b>연구절차</b>	2020년 4월 25-26일(예비조사) 2020년 4월 27일 - 5월 10일(본조사: online survey), IRB				
<b>자료분석</b>	SPSS WIN. 21.0 기술통계, Cronbach's $\alpha$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e				

POST COVID 19 2020-07-01 13

변인		Ranges	M	SD
어머니	부모 고통	9~45	2.83	.80
	역기능적 상호작용	11~55	1.89	.72
양육스트레스	까다로운 특성	9~45	2.04	.75
	전체 평균		<b>2.25</b>	
결혼만족도	전체 평균	22~110	<b>9.63</b>	
유아자녀	현저성	5~25	2.42	1.11
스마트폰 과의존	충동·강박사용	4~20	2.12	1.06
	금단	5~25	2.01	.77
	내성	5~25	2.61	1.07
	문제	6~30	1.66	.74
	대인간 갈등	5~25	2.04	.82
<b>DESCRIPTIVE STATISTIC</b>				
	전체 평균		<b>2.14</b>	

POST COVID 19 2020-07-01 14

부모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3.75)  
 아이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3.17)  
 내 생활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3.16)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한다(1.67)  
 아이가 다른 아이만큼 웃지 않는다(1.63)  
 아이를 나를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1.55)

**양육스트레스**

변인	집단	n	부모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특성	
			MSD	t	MSD	t	MSD	t
자녀와 보내는 시간	변화 있음	151	2.91(.79)		1.93(.73)		2.09(.77)	
	변화 없음	35	2.51(.78)	2.70*	1.70(.60)	2.00*	1.79(.59)	2.61*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변화 있음	85	2.96(.72)		1.98(.78)	1.53	2.16(.76)	
	변화 없음	99	2.72(.85)	2.13*	1.81(.66)		1.93(.73)	2.14*

변인	집단	n	부모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특성		
			MSD	F	Scheffe	MSD	F	Scheffe	MSD	F	Scheffe
모 연령	30세이하	8	3.24(.96)			2.30(.95)			2.32(.92)		
	31-35세	38	3.13(.71)			2.16(.75)			2.22(.70)		
	36-40세	69	2.78(.77)	2.60*	n.s	1.88(.76)	3.14*	b>d	2.07(.81)	1.47	-
	41-45세	34	2.64(.92)			1.64(.58)			1.88(.76)		
	46세이상	5	2.47(.69)			1.64(.46)			1.64(.36)		
최종 학력	고졸	14	2.41(.69)			1.68(.59)			1.79(.15)		
	전문대졸	37	2.92(.82)	1.91	-	1.94(.73)	.48	-	2.02(.12)	.56	-
	4년제 졸	92	2.79(.78)			1.88(.72)			2.04(.08)		
	대학원	42	2.96(.83)			1.91(.75)			2.08(.13)		
월 소득	200만이하	6	2.57(.58)			1.41(.40)			1.31(.29)		
	200~400	44	2.97(.81)	1.16	-	1.91(.70)	1.39	-	2.00(.67)	3.13*	α<b,c
	400만이상	136	2.80(.80)			1.90(.73)			2.08(.77)		
자녀 수	한 명	74	2.89(.71)			1.88(.67)			2.06(.75)		
	두 명	88	2.80(.86)	.06	-	1.90(.75)	.36	-	2.02(.75)	.03	-
	세 명 이상	24	2.77(.82)			1.87(.76)			2.02(.75) <sup>01</sup>		16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3.49)  
 내가 아는 사람들만큼 결혼생활이 즐겁다(3.49)  
 우리 결혼생활은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많다(3.39)

우리 결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스럽다(1.86)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1.80)  
 결혼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다(1.68)

**결혼만족도**

변인	집단	n	M	SD	t
자녀와 보내는 시간	변화 있음	151	3.56	.76	
	변화 없음	35	3.91	.63	-2.55*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변화 있음	85	3.49	.70	
	변화 없음	99	3.75	.78	-2.38*

변인	집단	n	M	SD	F	Scheffe
월 소득	200만원 이하	6	2.59	1.54		
	200~400만원	44	3.61	.62	5.38*	n.s
	400만원 이상	136	3.68	.72		

내 자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안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는다(3.09)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떼를 쓰지 않는다(3.06)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스스로 그만둔다(2.89)

스마트폰 사용으로 아이가 난폭해졌다(1.62)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사용으로 자녀의 수면이 부족해졌다(1.60)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하면 폭력을 행사한다(1.57)

변인	집단	n	현저성		충동·강박적			금단	
			<i>MSD</i>	<i>t</i>	<i>MSD</i>	<i>t</i>	<i>MSD</i>	<i>t</i>	
직업	있음	118	2.81(.81)		1.86(.73)	1.32	2.00(.74)		
	없음	68	2.86(.78)	2.24*	1.93(.69)		2.09(.76)	1.82	

POST COVID 19 2020-07-01 18

**스마트폰 과의존**

변인	집단	n	내성		문제		대인간 갈등	
			<i>MSD</i>	<i>t</i>	<i>MSD</i>	<i>t</i>	<i>MSD</i>	<i>t</i>
자녀와 보내는 시간	변화 있음	151	2.65(1.09)		1.69(.74)	1.00	2.10(.84)	
	변화 없음	35	2.46(.98)	.92	1.55(.71)		1.77(.67)	2.19*

POST COVID 19 2020-07-01 19

**스마트폰 과의존**

변인	집단	n	현저성			충동·강박적			금단		
			<i>MSD</i>	<i>F</i>	<i>Scheffe</i>	<i>MSD</i>	<i>F</i>	<i>Scheffe</i>	<i>MSD</i>	<i>F</i>	<i>Scheffe</i>
모 연령	30세이하	8	2.28(.78)			2.16(1.08)			2.05(.74)		
	31-35세	38	2.19(.83)			2.08(.81)			2.05(.66)		
	36-40세	69	2.32(1.14)	2.91*	n.s	2.13(1.02)	.67	-	2.05(.81)	.02	-
	41-45세	34	2.88(1.32)			2.36(1.43)			2.01(.89)		
	46세이상	5	3.32(1.12)			2.75(1.58)			2.08(1.30)		
자녀 수	한 명	74	2.47(1.14)			2.31(1.10)			2.08(.81)		
	두 명	88	2.26(.99)	2.88	-	1.92(.84)	5.32*	a>b	1.90(.67)	1.68	-
	세 명이상	24	2.86(1.34)			2.30(1.50)			2.18(.93)		

POST COVID 19 2020-07-01 20

변인	집단	n	스마트폰 과의존								
			내성			문제			대인간 갈등		
			M,SD	F	Scheffe	M,SD	F	Scheffe	M,SD	F	Scheffe
모 연령	30세이하	8	2.50(1.06)			1.50(.64)			1.88(.87)		
	31-35세	38	2.27(.85)			1.56(.60)			2.08(.64)		
	36-40세	69	2.68(1.00)	2.87	b<d	1.74(.76)	1.40	-	2.01(.82)	.96	-
	41-45세	34	3.01(1.30)			1.71(.80)			2.21(1.03)		
	46세이상	5	3.40(1.48)			2.33(1.34)			2.60(.73)		
자녀 수	한 명	74	2.65(1.06)			1.59(.71)			2.02(.80)		
	두 명	88	2.47(1.00)	2.77	-	1.61(.66)	4.28	n.s	1.98(.75)	1.95	-
	세 명										
	4명 이상	24	3.03(1.30)			2.06(.97)			2.34(1.04)		

### 결론

#### Mild moderate to moderate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바뀐 것은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이전에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태 조사한 연구(강민주, 2019; 강선희, 2018; 박정아, 2018) 결과, 우리나라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유아자녀 스마트폰 과의존은 moderate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2020년 5월 현재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질은 코로나 19 사태 경험 속에서도 크게 흔들림없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행스런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방역대응책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심리적 가림막(bumper)이 되고 종식의 기한 없는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보다 일상방역 등 준수해야 할 규칙을 지키면서 순응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 점등이 양호한 상태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연구자로서 **우려**를 갖는다. 코로나 19는 거대한 전 세계적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코로나 19 심각성에 대한 바른 직면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소 무딘 반응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OST COVID 19

2020-07-01

24

주목할 점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유아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모두에서 코로나 19의 대표적인 일상변화인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유의하게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점과 세부항목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는 분명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POST COVID 19

2020-07-01

25

## 양육스트레스 MILD MODERATE

강민주(2019), 박정아(2018), 한국아동패널(2011), 이재아(2011), Cluver et. Al(2020)

- 양상(고통, 까다로운 특성, 역기능적 상호작용)
- 낮은 연령의 어머니, 시간변화 집단, 소득수준

POST COVID 19

2020-07-01

26

## 결혼만족도

MODERATE

Wang et. al(2020), Ho, Chee & HO (2020), 박수선(1996), 김정주, 김용미(2008), 박윤경(2011)

시간변화 집단, 소득 수준

POST COVID 19 2020-07-01 27

##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MILD MODERATE

강민주(2019), 박정아(2018), 김윤희(2020), 김정미(2019), Kar, Arafat, Sharma, Dixit, Marthoenis, & Kabir(2020), King, Delfabbro, Billieux, & Potenza(2020), Volkow(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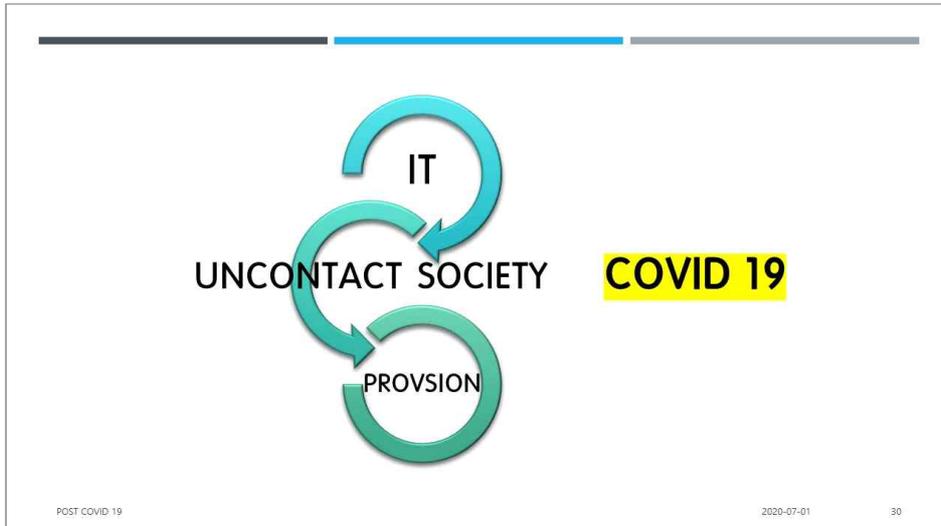
- 양상 다름(내성, 현저성)
- 시간변화 집단, 전업맘, 높은 연령의 어머니, 자녀 수

POST COVID 19 2020-07-01 28

코로나 19는 IT의 급진적 발달로 이미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비대면사회(Uncontact society)"를 강제적으로 앞당겼고,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질 저하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대면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질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는 불안함이 편리함과 연결되어 다른 형태로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적응형태를 만들 수 있다(김용섭, 2020).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 유비쿼터스와 맞물려 보다 확장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창의적 세계의 국면을 맞이할 기대도 할 수 있다.

POST COVID 19 2020-07-01 29



감사합니다.

POST COVID 19 2020-07-01 31



[토론문]

## 「코로나19 이후,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 삶의 변화 인식」에 대한 토론

순덕기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미래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제자의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짧은 소견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첫째, 제목에서 “어머니 삶의 변화인식” 이라면 코로나19 전후의 비교하는 척도로 측정하였다면 변화인식이 타당할 수 있으나, 연구내용이 주로 코로나19 이후의 주양육자의 인구사회적 측면과 주요변인들과의 차이 검증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제목에 좀 더 부합한 연구가 되려면 코로나19 이전의 논문과 비교검토를 하거나 또는 측정도구를 사전-사후검사가 같이 진행되어 대응 집단분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연구가 되리라 판단된다.

### 2.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모집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발제자가 연구절차에서 무작위 확률표집법으로 제시하였으나 모집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표집틀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확률적 표집방법보다는 비확률 표집방법의 임의표집 또는 유의표집으로 판단된다. 표집방법은 모집단의 대표성과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좀 더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

### 3.

셋째, 결혼만족도의 척도의 역점처리에 대한 언급필요(6개 문항, 3개 문항 긍정적 문항, 3개 문항 부정적 문항) - 역점처리 후 평균값 제시가 정확하지 않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에 문항수와 하위요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4.

넷째, 배경요인의 집단구분 시 케이스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6명, 200~400만원 44명, 400만원 이상 136명, 200만원 이하가 6명으로 케이스 너무 작아서 사후검정값이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차라리 300만원 이하, 400만원, 500만원대 이상으로 값을 구분하면 케이스수가 적정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모(母)연령 구간을 30세 이하 8케이스, 46세 이상이 5케이스 집단 분석하는데 케이스수가 적다. 30대와 40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5.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차이검증 뿐만 아니라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면 연구가 좀 더 유용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부족한 소견으로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양해와 검토를 바라며 발제자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업적에 대해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 : 복지정치로 본 전략과 과제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사회보장

---

### : 복지정치로 본 전략과 과제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 상반기 학술대회

- 발표자 : 박 보 영
- 소 속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일 자 : 2020. 7. 3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702호



## Contents

- 1 포스트 코로나 : 뉴 노멀 .....
- 2 코로나와 사회보장 : 위험 요인 .....
- 3 코로나와 사회보장 : 기회 요인 .....
- 4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의 비전과 전략 .....
- 5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 .....
- 6 문제는 정치다 .....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2

**0. 프롤로그**

The screenshot shows a mobile view of a Washington Post article. The main headline is "The pictures say it all: How South Korean schools are reopening". Below the headline are two photo thumbnails. The first shows a classroom with students at desks, and the second shows teachers checking desk dividers. Captions for the photos are: "A class at Jeonmin High School in Daejeon. (Yonhap/EPA-EFE/Shutterstock)" and "Teachers check the desk dividers at Jungthwa Girls' High School in Daegu, South Korea, last week. (Kim Hyun-Tae/Yonhap/AP)".

워싱턴 포스트(2020.5.27)      워싱턴 포스트(2020.5.27)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3

**0. 프롤로그**

The cartoon on the left depicts a worker in a red cap being pushed out of a doorway. Speech bubbles and labels identify different types of workers: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Remote work possible workers),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 (Essential workers),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Workers who didn't get paid), and "일해준 노동자" (Workers who worked). A sign in the background says "코로나시대 노동 계급도..." (COVID-19 era labor class...). The photograph on the right shows a woman in a dark shirt and patterned pants standing on a toilet in a small, cluttered bathroom, possibly taking a selfie or video.

한겨레 그림판(2020.4.28)      영화 <기생충> (2019)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4

**1. 포스트 코로나 : 뉴 노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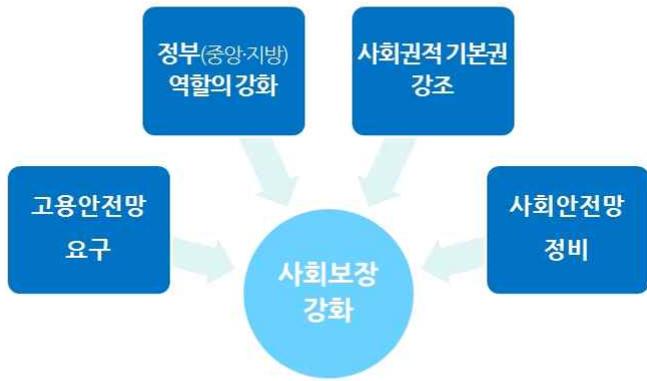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5

**2. 코로나와 사회보장 : 위험 요인**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6



### 3. 코로나와 사회보장 : 기회 요인



사회보장 강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_윈스턴 처칠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7



### 4.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의 비전과 전략

-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 코로나 팬데믹을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회변혁을 위한 담대한 기획과 실천'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다음의 2대 프로젝트를 융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태도가 중요함(야마구치슈).

▪ 2대 프로젝트의 도해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8



## 4.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의 비전과 전략

### ■ [프로젝트 1] 새로운 사회계약 (New Deal)

- **재난이 열어준 정치적 국면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 구축을 통한 사회개혁' 추구.** ⇒ 영국의 베버리지와 애들러, 스웨덴의 비그포르스와 한손, 미국의 루스벨트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포용적 복지국가, 평등경제**(\*격차해소와 분수효과)
-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정치사회적 저항'과 '지대추구 행위'에 유념해야 함.**  
⇒ 개혁연대를 통한 다수파 정치 중요

### ■ [프로젝트 2] 적극적 자유 증진

- 한국은 잔여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강화를 자유와 연계시켜야 정치적 저항이 적음.
- **소극적 자유**(\*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각자도생) vs **적극적 자유**(\*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연대)
- **재난 → 각자도생 or 연대** ⇒ 해당 사회의 선택은 정치와 직결되며 선택 그 자체가 정치적인 수밖에 없음.
- 한국은 외환위기 때 **소극적 자유의 길**(\*각자도생)을 갔고 그 후과를 치르고 있음. 그러나 이번 재난에는 **'연대의 증진을 통한 적극적 자유의 길'을 갈 필요가 있음.**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9



## 5. 코로나 이후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

제도	현황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전국민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li> <li>- 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적용.</li> <li>- 자영업자의무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반보험료(*사용자요건폐지).</li> <li>• 저임금노동자의무가입.</li> <li>• 걱정수급일수보장.</li> <li>• 미취업실망실업자지원.</li> </ul>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 시행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및 구직 지원(*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li> <li>-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지급. 단, 청년층(만 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촉진수당 인상(*평균임금의 15-20% → 25-30%).</li> <li>• 지원기간 확대(*6개월 → 12개월 이상)</li> <li>• 지원기간 갱신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위소득 기준 상향(*50% → 100% 이하).</li> <li>• 불완전취업자(*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저소득이 있는 자: 월 80만원 이하)도 구직촉진수당수급.</li> </ul>
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선별)</li> <li>•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보편)</li>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선별)</li> <li>•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보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대화 및 합의</li> <li>- 보수(찬): 증세없이 기존 복지를 축소해 기본소득으로 돌리자.</li> <li>- 진보(반): 재원 때문에 기본소득과 복지제도 확충은제로섬 관계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세</li> <li>• 재정적보수주의 극복</li> </ul>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0



## 6. 문제는 정치다

- 유사한 위기와 조건 속에서 각국의 성패를 가른 건 '정치'였음.
  - 문제의 출발은 경제지만, 문제의 해결은 정치임(Paul Krugman).
-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함. 적극적 재정정책은 **정치적으로 3가지 비토포인트(veto points)를 돌파해야** 하며, 정치적 상상력과 의지가 크게 요구됨.
  - 정부 내 재정적 보수주의자들
  - 의회 내 시장보수들
  - 자유지상주의를 신봉하는 경제권력 및 보수언론
- 만약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은 또다시 97년 외환위기의 전철(\*각자도생과 불평등 확산)을 밟을 수도 있음.
  -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취약계층만 골라 때리는 상황은 막아야 함.
  - 즉 위기(재난)가 불평등을 키우는 '정치사회적 실패'를 재연해서는 안 됨.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1



## 6. 문제는 정치다

- 한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의 '선도(leading) 국가'로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도 어젠다 세터(agenda setter)로 역할해야 함.



- 2020.5.18.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WHO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모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All)** : "한국 국민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 2020.6.9. 국무회의 모두발언 :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2



## 6. 문제는 정치다

- 더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스트 코로나의 필요충분조건임.
- 방역, 기본소득, 사회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의 최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함.



머니투데이방송(2020.3.3)

성남시, '고용 사각지대' 특수고용 직·프리랜서 등 보호 조례 추진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등도 보호



한겨레 (2020.6.17) 성남시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월22일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3



## 6. 문제는 정치다

- 더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스트 코로나의 필요충분조건임. <계속>
- '플랫폼 자본주의'(\*풍부한 금융자본, 노동의 외주화, 데이터 및 네트워크의 효과 등 → 경쟁과 독점) 하의 코로나 팬데믹은 '불평등 팬데믹'으로 전화하기 십상임.
- 닉 서르닉(Nick Srnicek)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함께 적극적인규제정책을 펴고 공공플랫폼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탈자본주의적 플랫폼(자동화된민주적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함. 이런 플랫폼은 데이터 터플수집해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기술을 촉진할 수 있음."
- 한국에선 이미 지자체가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예)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등.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4



## 6. 문제는 정치다

“박스를 옮겨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자 역할이며,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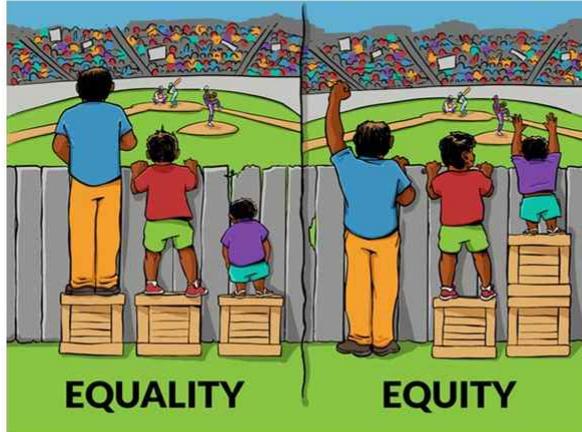


그림- <https://bakton.tistory.com/318> (검색: 2020.6.29. 23:47)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5



## 참고문헌

- 닉 서브닉(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심성보 옮김. 킹콩북.
- 다니엘 슈텔터(2020). 코로나믹스, 도지영 옮김. 더숲.
- 박병현(2017).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 스티븐 스미스(2020). 세금이란 무엇인가, 김공회, 리시울.
- 아누 파르타넨(2017).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노태복 옮김. 윈더박스.
- 야마구치 슈(2020). 뉴타입의 시대, 김윤경 옮김. 인플루엔셜.
- 양재진(2020). 복지의 원리, 한겨레출판.
- 연니안데르손(2014). 경제성장과사회보장사이에서: 스웨덴사민주의, 변화의계직, 박형준 옮김, 책세상.
- 오노 가즈모토 편(2020). 거대한 분기점, 최예은 옮김, 한스미디어.
- 이현훈(2020).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해남.
- 제이슨 생커(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 존 롤스(2003). 정의론, 황경식, 이학사.
- 천관울(2020). 우리는 '미국식 자유'와 분명히 결별한다. 시사IN, 666(2020.6.23).
- 패트릭 J. 드닌(2019).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 폴 크루그먼(2016).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유중 옮김, 스마트비즈니스.
- 폴 크루그먼(2012).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박태일 외 옮김, 엘도라도.
- 황경식(2018). 존 롤스 정의론, 쌤앤파커스.
- Tragardh, Lars (1997). *Statist Individualism*. Center for Western European Studies, UC Berkeley.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 대한민국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2020-07-03

한사질 2020 상반기 학술대회

16



감사합니다



[토론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新빈곤

서경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과거 거대 로마제국과 잉카제국은 천연두, 페스트와 같은 역병의 대유행(pandemic)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100년 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의 3배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인들을 또다시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고 이미 5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대유행은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 □ 코로나19의 혜택 : 新 화이트칼라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는 더 이상 출퇴근을 위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일평균 1.5시간에 달하며 원격근무 근로자는 이를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택근무로 인해 감염병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 □ 코로나19의 재앙 : 新 블루칼라

코로나19는 비대면 사업의 성장을 이끌며 대량실직과 소상공인들과 같은 자영업자의 파산

으로 이어지며 양질의 일자리 대신 플랫폼 노동자 같은 저급에 일자리를 양상으로 이에 속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확실한 노동시간,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2부 워크숍

---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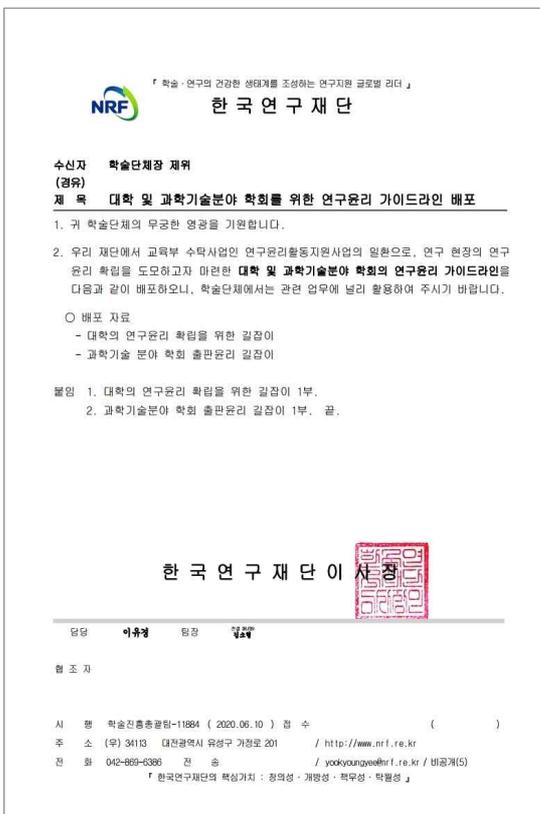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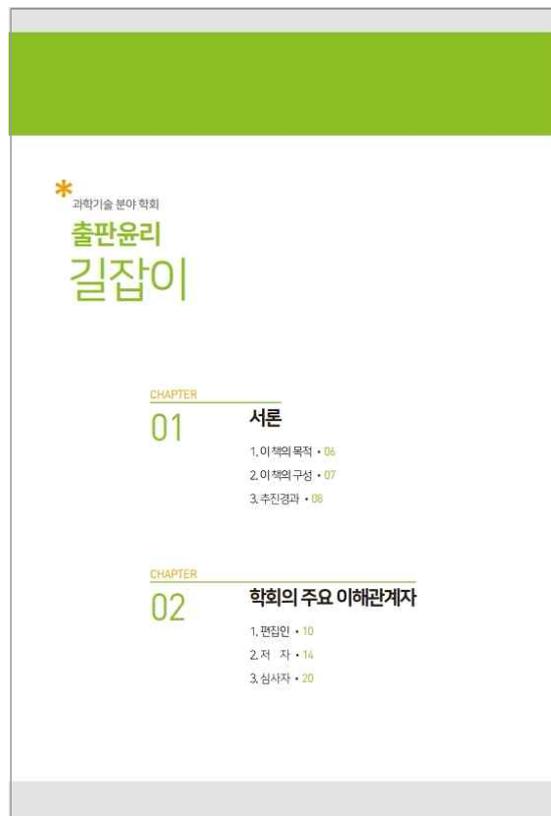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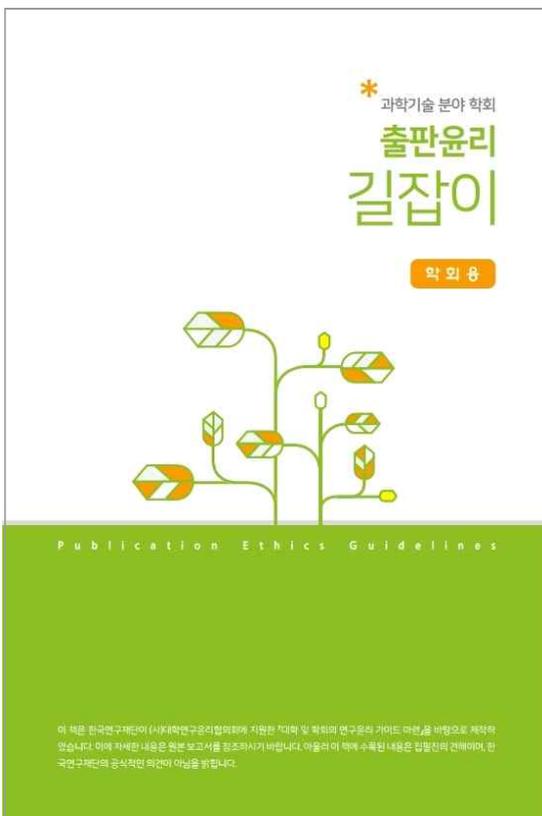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b>01</b>	<b>CHAPTER</b>	<b>머리말</b>	
		1. 이 책의 목적	06
		2. 이 책의 구성	07
<b>02</b>	<b>CHAPTER</b>	<b>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b>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b>03</b>	<b>CHAPTER</b>	<b>주체별 역할과 책임</b>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b>04</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b>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b>05</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b>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2. 검증주제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b>06</b>	<b>CHAPTER</b>	<b>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b>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2.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81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b>07</b>	<b>CHAPTER</b>	<b>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b>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b>08</b>	<b>CHAPTER</b>	<b>참고문헌</b>	95
		<b>부록</b>	96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4)

CONTENTS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 1. 동료심사 • 26
- 2. 이해상충 • 30
- 3. 논문철회 • 32
- 4. 저작권 보호 • 36
- 5. 우리표명 • 36
- 6. 독자통신 • 36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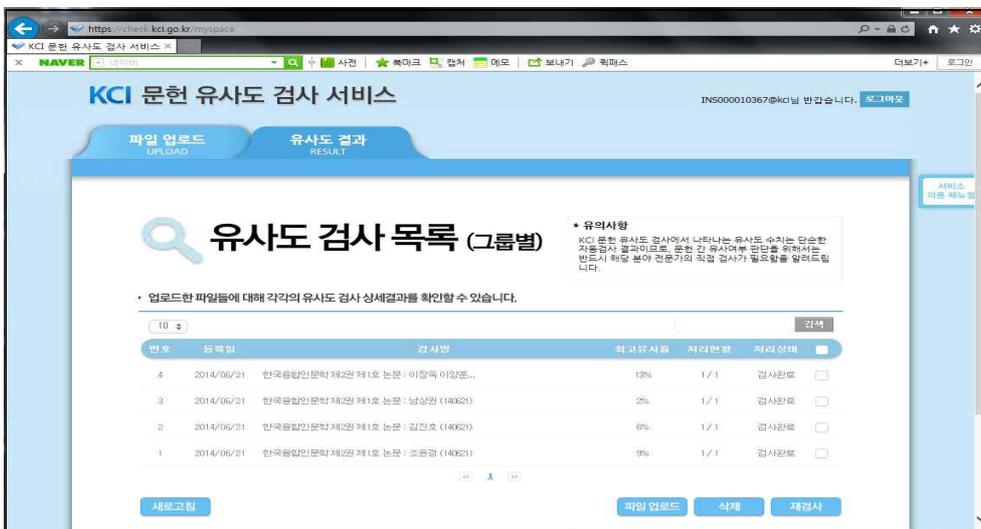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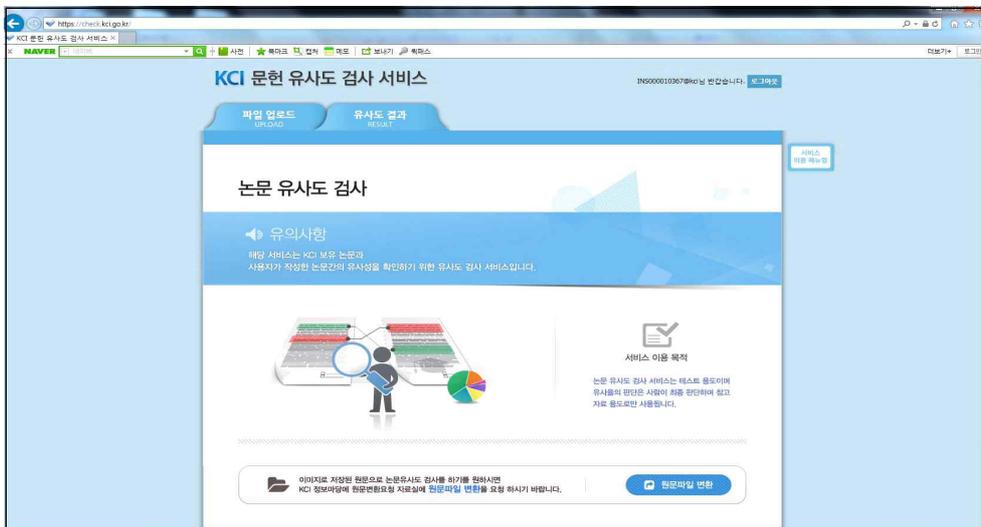
-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 4. 생명윤리 • 48
-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05 부록**

-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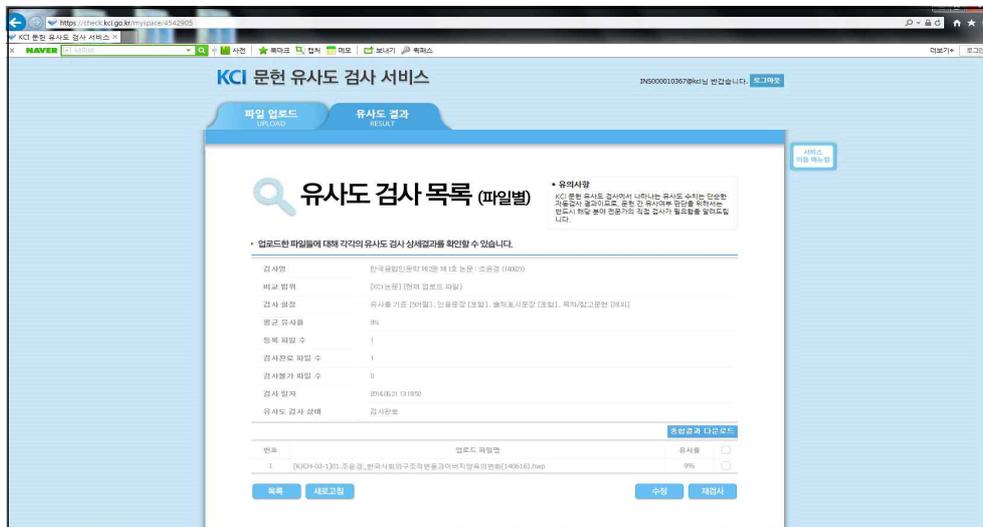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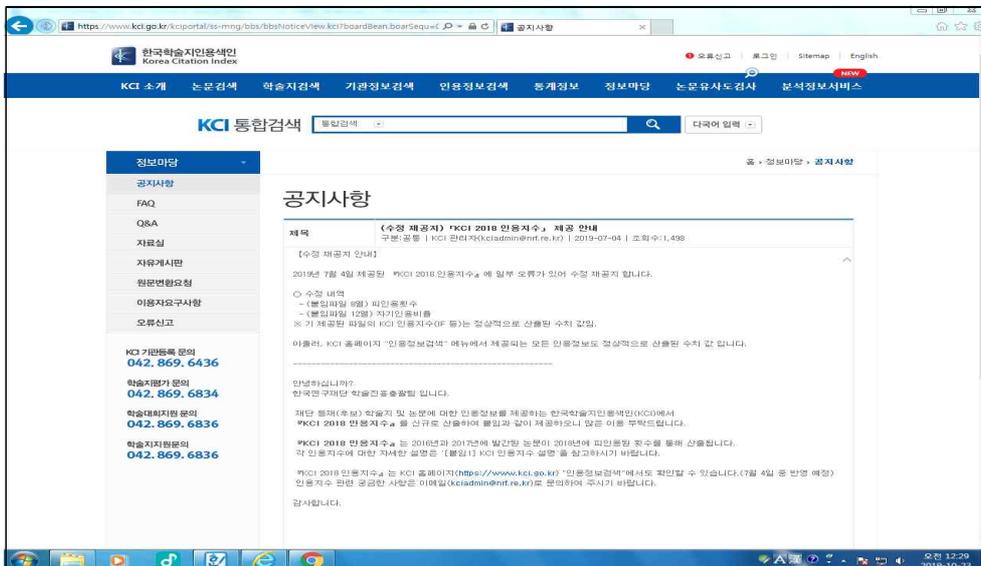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상반기 학술대회(2020.7.3)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한국연구재단  
 NRF 「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  
**한국연구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국연구재단 「KCI 2018 인용지수」 제공 안내**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19년 7월 3일 기준, 「KCI 2018 인용지수」를 신규로 산출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KCI 2018 인용지수」는 KCI 홈페이지(<https://www.kci.go.kr>) <인용정보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kciadmin@nrf.re.kr](mailto:kciadmin@nrf.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KCI 인용지수 설명 1부.  
 2. 인문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3. 사회과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4. 자연과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5. 공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6. 의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7. 농수해양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8. 예술체육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9. 복합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끝.

**한국연구재단이 사증**

수신자 재단 등록(후보) 학술지 발행기관, 기타

담당 **이유경** 팀장 **김소혜** 실장 **한기환** 본부장 **정희영** 팀장

참 조 자

시 행 학술진흥총괄팀-12100 ( 2019.07.04 ) 결 수 ( )  
 주 소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http://www.nrf.re.kr>  
 전 화 042-869-6386 전 송 / [yookyoung@nrf.re.kr](mailto:yookyoung@nrf.re.kr) / 비공계(5)  
 「 한국연구재단의 특성가치 : 창의성 · 개방성 · 책무성 · 탁월성 」